

# 발길 줄어드는 '5·18 기록관' 묘수가 필요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8만여점의 기록물을 보존·전시·연구하는 공간인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찾는 방문객이 줄고 있다. 사진은 한산한 모습의 전시실 내부.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지난해 국·시비 266억 투입...옛 카톨릭센터에 8만여점 전시 개관 첫 날·5월 반짝 관람후 하락세...관람객 유도 방안도 전무

80년 5월 광주를 증거하는 기록의 수장고이자 전시관인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하 5·18기록관)을 찾는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다.

5·18기록관이 지난해 5월 광주 금남로 옛 카톨릭센터에 문을 열 때만 해도 매일 수백명이 방문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마주하고 그 의미를 되새겼던 것은 반짝 효과로 그쳤고 한산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5·18 왜곡이 잇따르는 요즘 혈흔이 묻은 의복과 신발, 시민을 향해 총칼을 겨누는 계엄군의 사진, 80년 5월을 기록한 기자들의 취재수첩 등이 전시된 5·18기록관에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게 할 대책이 절실하다.

12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지난해 5월13일 문을 연 5·18기록관에는 채 20일도 되지 않은 첫달 5800여명, 하루 평균 350여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출발은

성공적이었다.

기록관을 둘러본 관람객들은 전시실(1~3층)에 전시된 5·18 관련 문서기록, 당시 신문, 사진 등을 통해 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항쟁의 진실에 다가설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발발과 진압, 진상 규명, 명예회복 등 전 과정에서 정부, 국회, 군, 학교, 시민사회단체, 언론, 미국정부 등이 생산한 방대한 문서 기록과 사진, 영상자료가 가치판단을 생각하고 '팩트'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한데 모아 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5·18기록관을 찾는 관람객은 지난해 6월 1800명(하루 평균 70여명)으로 급감한 이후 좀체 늘어나지 않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5·18기록관을 찾은 관람객은 1만9000여명에 그쳤다. 관람객이 적은 날엔 10여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방문객에 대한 데이터(거주지,

방문계기 등)를 축적하지 않아 장기적인 관람객 유도 방안 수립조차 힘든 상태다. 이 때문에 5·18 기록관이 좀체 활성화되지 않고 5월이면 잠시 관람객이 모였다가 외면하는 '존재감 없는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5·18기록관 관계자는 "5·18에 관한 기록물이 가장 방대하게, 체계적으로 전시·보관 중인 사실은 물론 기록관의 존재 자

체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올해부터는 홍보를 보다 강화하고 전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하는 등 장기적인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5·18기록관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8만여점의 기록물을 보존·홍보·연구하는 전시공간으로 국비와 시비 266억원이 투입됐다.

## 5·18 첫 백서 '죽음을 넘어...' 31년만에 증보판 출간

5·18 민주화운동을 최초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한 책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증보판이 31년 만에 발간된다.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증보판을 오는 5월에 발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발간 예정이었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증보판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진행에 차질을 겪으면서 애초

계획보다 1년가량 늦게 나오게 됐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증보판 간행위원회는 2014년 7월 "우리 사회 보수화의 흐름을 등에 업고 일부에서 5월 항쟁의 북한 사주설을 제기하고 항쟁 참여자를 비하하는 등 5·18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5월 항쟁의 순수성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알리고자 증보판을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서민법률 주치의 '서구청 법률상담터' 지난해 600건 상담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망한 뒤 집으로 소장(薪狀)이 왔어요. 주변 도움을 받아 상속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삶을 이어가던 주부 정모(35·광주 서구)씨는 지난해 커다란 시련을 맞았다.

개인 사업을 하던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떠났는데 남편이 생전에 거래

하던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 독촉이 잇따르면서 평온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난 것이다.

정씨는 자신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도록 절차를 밟았지만, 내용 모를 소장과 판결문을 집으로 날아들었다.

당시 정씨는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도 곤경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일반인으로서

쉽게 뜻을 알기 어려운 법률용어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러던 정씨는 광주시 서구정이 운영하는 무료 법률지원서비스인 '법률상담터'에 대해 알게 됐고, 구청에 상주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관련 분쟁을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광주시 서구는 법무부 공모사업으로 진

행 중인 법률상담터에 지난해 600여건의 상담이 접수돼 무료 법률지원이 이뤄졌다고 12일 밝혔다.

상속·채권·채무·임금·이혼·친권·양육·개인회생·손해배상·임대계약 분쟁 등 40여종의 법률자문이 법률상담터를 통해 제공됐다.

법률상담터는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지만 일반 시민도 간단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서구 복지정책과(360-7731).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해질 17:41, 달돋이 09:40, 달질 21:14

**교통 안전 주의** 새벽과 아침에 일부지역에 눈 또는 비가 오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눈온뒤겹 -3/3	보성	구름많음 -5/4
목포	구름많음 -1/4	순천	구름많음 -2/5
여수	구름많음 -2/4	영광	눈온뒤겹 -4/2
나주	구름많음 -4/4	진도	구름많음 -1/5
완도	구름많음 -1/5	진주	구름많음 -4/2
구례	구름많음 -5/4	군산	구름많음 -3/2
강진	구름많음 -2/4	남원	구름많음 -6/2
해남	구름많음 -3/5	속원	구름많음 1/4
장성	눈온뒤겹 -4/2		

**바다 날씨**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서~북서	1.0~2.0	서~북서	1.0~2.5
남해 앞바다	서~북서	1.5~2.5	서~북서	2.0~3.0
남해 서부	북서~북	0.5~2.0	서~북서	0.5~2.0
남해 서부	북서~북	1.5~2.5	서~북서	1.5~2.5
남해 서부	북서~북	1.5~2.5	서~북서	1.5~2.5

**생활지수**

관심	체감온도
낮음	동파
높음	뇌졸중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4:07	09:23
여수	16:45	21:57
	11:27	04:51
	23:38	17:31

**주간 날씨**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	☀	☀	☀	☁	☀	☀
-3/4	-2/4	-4/4	-3/3	-3/3	-3/3	-3/2

## 초교 돌봄교실 이용 5·6학년까지 확대

올해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대상이 5~6학년까지 확대된다. 또 방학 중에도 수요에 따라 오전과 오후 모두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올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정규수업 이후에도 학교에서 돌봐주는 복지서비스로,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오후 돌봄과 저녁을 먹고 오후 10시까지 돌봐주는 저녁돌봄으로 나뉜다.

오후돌봄은 지난해 기준 1만2380개

교실에서 23만9700여명이, 저녁돌봄은 1910여개 교실에서 1만62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학생들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220개 교실이 늘어나고 이용자도 4000여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비는 무료지만 간식비나 석식비(저소득층은 무료)는 따로 내야 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돌봄교실에서는 기존에 진행하던 매일 1개 이상의 무상교육 프로그램 외에 놀이와 안전 관련 프로그램이 추가된다.

## 코레일 호남선 설 승차권 20일 예매

코레일은 호남선 설 열차승차권을 오는 20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매할 수 있고,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가능하다. 예매대상은 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일반열차와 O·V·S·DMZ-트레인 등 관광열차

열차의 승차권이다. 전체 승차권 중 인터넷에 70%, 역 창구 및 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배정된다.

예매 후 남은 승차권은 21일 오전 10시부터 판매한다.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 가능하다.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 법인회생, 해낼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변호사 **곽민섭** 법률사무소  
☎ (062) 228 - 2266  
광주 동구 지산로 70(동산빌딩 4층)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신대학교 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미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연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시범, 향장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810 6층  
☎ 521-4405  
호남지사 ☎ 275-7766